

미국은 지금

대규모 이민자 추방 예산과 사설 교도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Strategy 김승혁 ocean93@kiwoom.com



Issue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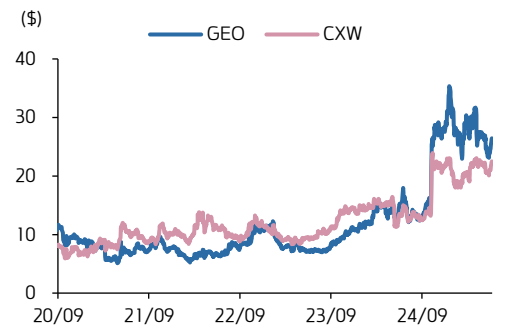
통과된 대규모 이민자 추방 예산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이민 단속과 구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7 월 4 일 발효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은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예산을 대폭 확장했다. **1)신규 구금 시설 예산 450 억 달러(기존 예산 대비 265%↑), 2)국경 장벽 운영 466 억 달러(트럼프 1 기 대비 3 배), 3)단속 및 추방 예산 299 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고, **ICE 전체 연간 예산은 3 배 확대**되었다. 특히 ICE 는 하루 구금 수용 능력을 기존 56,000 명에서 100,000 명 이상으로 거의 두 배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450 억 달러가 투입될 신규 구금 시설이 일일 구금 가능 인원 116,000 명 이상 만들어 낼 것이라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의 수혜는 대부분 민간 교정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ICE 구금자의 약 90%가 민영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ICE 와 계약한 주요 민간 기업은 **GEO Group(GEO)과 CoreCivic(CXW)** 두 곳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 수혜가 집중될 민간 교도소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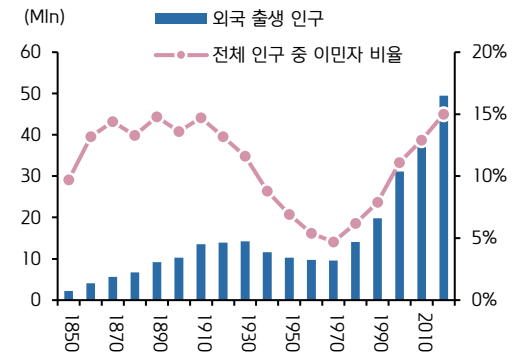
민간 교정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첫째는 **정부와의 구금/교정 계약이다**. 연방 또는 주 정부와 계약을 맺어 일정 인원 기준으로 고정된 일일 단가(per diem)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text{수익} = \text{수용 인원} \times \text{단가} \times \text{기간}$ 의 공식으로 수익이 측정되며, 5~10 년의 장기 계약이 체결된다. 두 번째는 수감자 노동 기반 수익 구조이다. 외부 업체로부터 인력을 제공하는 하청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만들며, 수감자들에게는 일일 기준 1~6 달러의 낮은 임금만을 제공해 비용을 최소화한다. **즉, 수감자가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ICE 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으로 인해 새롭게 증가할 침상의 수는 **최소 4.4 만 개이다**. 침상의 수가 곧 수감자 수를 의미하며, 4.4 만 개의 침상 증가는 민영 교정 기업들에게 연간 약 18.8~22.7 억 달러 정도의 신규 매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ICE 구금자의 90% 이상이 CoreCivic 과 GEO Group 두 기업에게 배분되며, GEO Group 이 ICE 가 공급하는 전체 구금자 중 2/3 정도를, CoreCivic 이 1/3 정도를 담당한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GEO Group 은 약 13.8 억 달러가, CoreCivic 은 약 6.9 억 달러가 신규 매출원으로 발생**한다.

민간 교도소 기업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비중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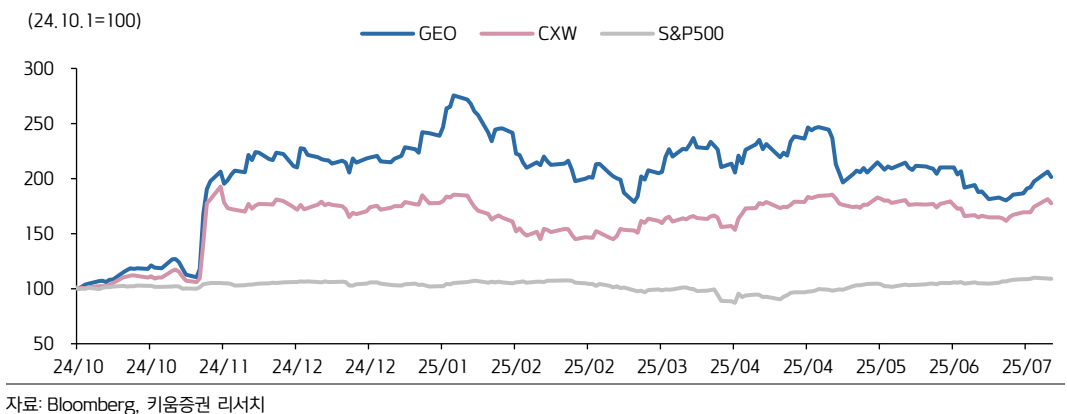
숫자로 확인될 정책 수혜

GEO Group의 '24년 매출에서 ICE 관련 비중이 43% 수준이다. 즉, ICE발 신규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앞서 추정한 13.8억 달러의 신규 매출 발생 가능성을 1분기 공개했던 **FY25 매출 가이드스(25.3억 달러)와 비교해 보면 54.5% 수준의 매출 상향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CoreCivic의 ICE 매출 비중은 30% 수준이다. GEO Group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나, 최근 텍사스의 Dilley 가족 구금 센터 재가동(5년간 2억 4,600만 달러 규모 계약)과 버지니아의 Farmville 구금 시설 인수(연 4,000만 달러 추가 매출 예정) 등을 통해 ICE로부터의 수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추정한 6.9억 달러의 매출 순증을 CoreCivic의 **FY25 순이익 가이드스(0.9~1.1억 달러)에 반영해 보면 35.3% 수준의 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기록한 수용률(77%) 역시도 높아질 여지가 있다. 관련 기대감은 최근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GEO Group은 +4.5%, CoreCivic은 +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S&P500이 같은 날 -0.8%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오름세였다. 다만, 예상되는 실적 상승분을 감안할 경우 아직 본격적 오름세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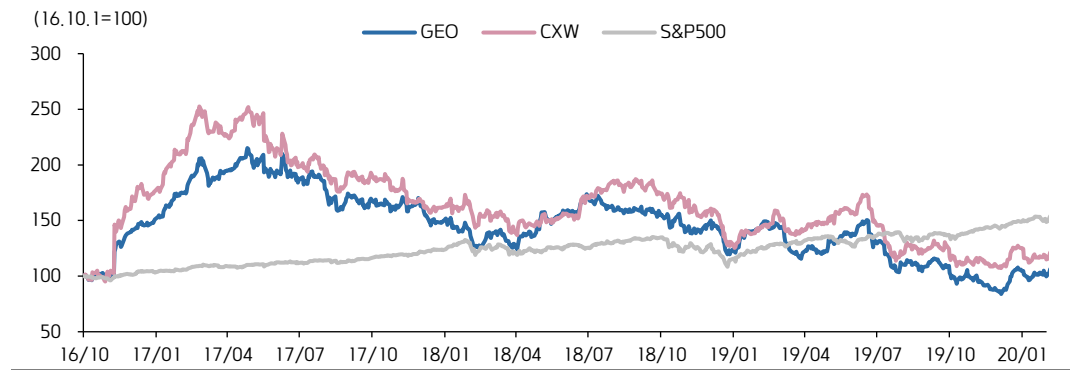
구금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

일각에서는 이민자 “추방”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구금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이민 법원 판사 수 최대 상한을 800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존 700명이었던 법원 판사 수 최대 증원폭을 100명으로 한정된 것이다. 올해 2월 기준 이민 법원 적체 건수는 368만 건으로, 평균 636일의 대기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전체 이민자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구금의 필요성이 있는 0.8% 정도인 28,216명은 구금되어 있다. **이미 2년에 가까운 대기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이민 단속이 시작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판사 수까지 제한된다면 구금 건수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구금자들은 앞서 언급한 GEO Group과 CoreCivic이 운영하는 민간 교도소 시설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인 이유로 “추방”을 위한 정책이 “구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집권 이후의 민간 교도소 기업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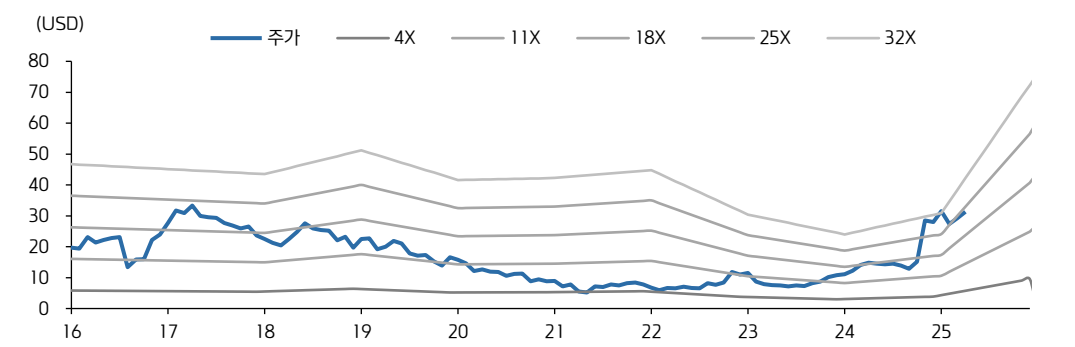


트럼프 1기 집권 이후의 민간 교도소 기업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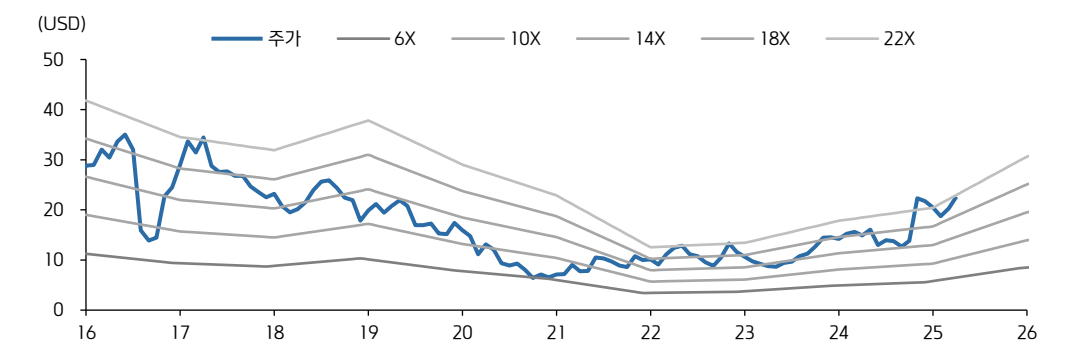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GEO Group PER 밴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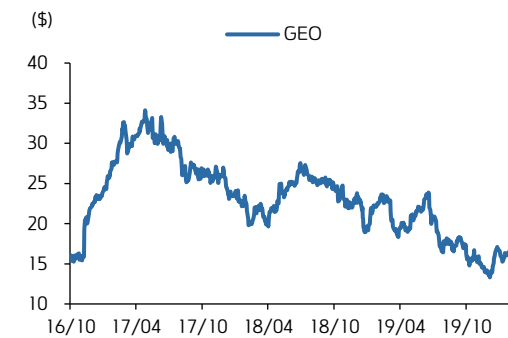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reCivic PER 밴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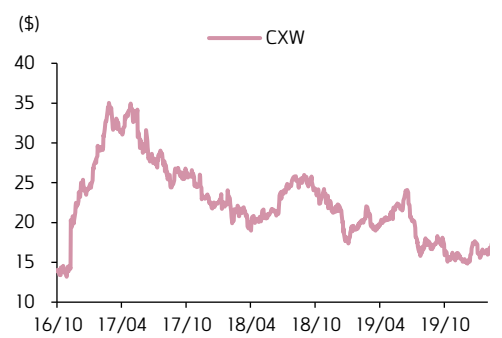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트럼프 1기 GEO Group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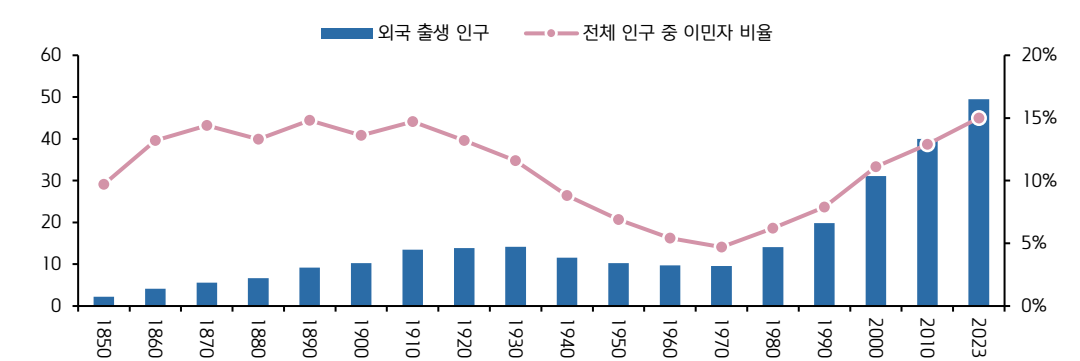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트럼프 1기 CoreCivic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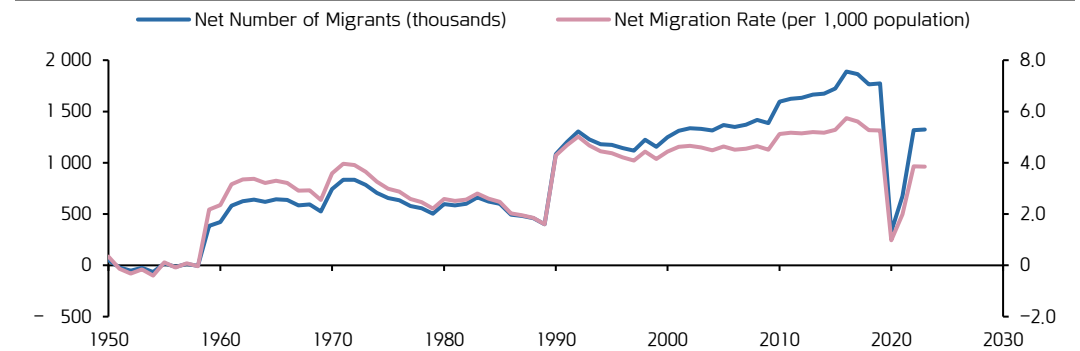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비중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순수 증가된 이민자 수(유입 - 추방) 변화 및 비중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